불자 세상보기

김 규 칠

언론인

다양성 살리기와 죽이기

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에 서울 강남의 기독교계 모 대학에서 '종교간 벽 허물기'와 '이웃종교 이해하기'의 취지로 강의 해오던 이 모 교수가 방송 프로그램제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방송관계자들과 불교계 사찰을 함께 방문하는 기회에, 남의 집 예방시 그 집 주인이나 집안 어른에 대해 인사하는 것처럼 예의로서 본존불에 경의를 표한 것을 이유로 삼아 이번에 교수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런 일을 어떤 학교와 한 사람의 교수에 관한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교 방침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어떤 교수를 두둔하고 안하고의 차원을 떠나 그냥 넘길 수만은 없다.

학교는 학교대로 방침과 기준이 있을 것이고 해당 교수는 교수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또 표면적인 구실과 내면적인 이유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일에 참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사고경향이 횡행하는 세태의 하나로서 이번 사례가 인식될 소지가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독선과 아집이 지구촌을 갈가리 찢어 놓으려 하는 정세에 돌입해 있다. 겉으로 드러낸 문명과 종교와 신념의 충돌이라는 이름 하에 실은 속에 감춘 이익과 교만과 지배욕이 송곳처럼 튀어 나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며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크고 작은 여러 사회세력들의 입은 민주와 관용과 평화공존을 주장하면서도 내심은 나와 내 편이 살아남아야 하고 이겨야 하고, 나와 내 편의 생각과 이익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집착으로 꽉 차 있다. 남을 향해서는 이해와 관용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자기의 아집과 이익과 핏대는 조금도 완화시킬 마음이 없는 것이 그들, 관념과 허위의식의 노예들이다.

지금 지구 마을 곳곳에서는 이중 잣대, 자기기만과 타자기망을 일삼으며, 표방하는 관념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관념의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대중을 사로잡고 있지나 않은가, 아니 대중 스스로도 자기들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 올 피해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한데 어울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나라의 안팎을 불문하고 관념적 종교와 문명의 실상이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진실한 종교인들의 진지하고 순수한 믿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력과 조직과 이해관계의 타산으로 닳고 닳은 무리들이 관념적 종교와 문명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야만의 행세를 하고 있는 점은 없는 가 자문도 하고 타문도 해보자는 말이다.

이른 바 계몽의 시대가 새벽을 열기 직전에 독일의 극작가 '레싱'은 "진리는 소유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색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무릇 인간이 표상하고 표현하는 진리란 아무리 고상하고 성스러워도 조건적 세계의 형상과 언어와 형식을 통할 수밖에 없는 한, 거기에 집착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면서 겸허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어설픈 반(半)계몽사상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 이천오백년도 더 전에,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진정한 '온' 계몽의 사상이 이 세상에 출현하였건만, 아직도 크고 작은 세력들의 세상에서는 그 진의가 요익중생의 실천 차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관념의 유희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제는 정말 관용과 중도의 종교인 불교가 앞장서서 실천 차원의 '참다운 계몽의 새 시대'를 열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도들 끼리, 우리들 자신부터 '서로 다름'에 너그럽고 부드러워야 할 것이다. 단,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겉으로만 부드러울 것이 아니라, 안으로 진정 그 속내가 부드러워야 할 것이다.

위 예의 해당 교수가 참여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목은 '똘레랑스(관용, 이해의 여지)'였다. 마침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었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취지에 대한 이해가 수박 겉핥기식이거나 일회용으로 그치고 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종교 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란 어떤 것이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관용인가'에 관해서도 차제에 불교가 앞장서서 사회통념상 동의할 수 있는 공감대 비슷한 것을 한번 이룰 수 있도록 종교간 논의를 제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연등축제를 국민축제로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한 연등축제가 오는 4월 30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근 들어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연등축제가 금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지 벌써부터 자못 궁금하다,

연등 공양의 공덕에 관한 기록은 여러 경전에 나타나고 있는 바, <증일아함경>에서는 등광여래가 보장여래에게 매일 연등을 공양한 공덕으로 성불의 수기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연등은 무명과 탐욕의 어둠 속에 헤매이는 중생을 지혜와 자비의 밝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 상징적 의미와 공덕은 지대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불교적 인식과 전통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어져 고려시대에는 연등회가 국가적 행사로 치러졌다. 연등회는 태조 때에는 정월 보름날에 행해졌지만, 현종 때부터는 2월 보름으로 바뀌었고, 공민왕 때부터는 사월 초파일에 궁중에서 열렸으며, 이러한 풍습은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졌다.

광복 이후 다시 성행하게 된 연등법회는 이제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중심 행사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특히 서울 종로 일대에서 행해지는 연등축제에는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연등축제는 아직까지 불자만의 집안 잔치라는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봉축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 노래와 율동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봉축위가 불교레크레이션협회와 공동으로 '연등축제 율동자료집'을 발간 보급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할 것이다. 원시시대의 음악과 무용이 원래 종교적 성격과 축제적 성격을 겸비했던 것임을 상기한다면, '신명나고 역동적인 참여축제로서의 연등축제'라는 봉축위의 기본 구상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다 할 축제 문화가 없는 상황에서, 연등축제가 전통놀이문화를 흡수하여 '국민축제'로,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박경준(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지도자의 처신

"국왕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정사를 행하고 악한 일을 덜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방등경〉

요즘 정치인들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들은 예전에 있었던 단순 추태가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들이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다.

'사퇴'라고 하는 겨자를 울며 먹은 이해찬 前 총리. 재야 운동권에서 필드운동권(?)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그가 끝내 낙마하고 말았다.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여러 차례 '현장'이 아닌 '필드'로 출동했던 이씨는 지난 3월 1일 철도파업의 와중에 부산 지역의 한 골프장에 있었다. 그냥 운동을 즐겼다고 해도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씨는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 내기골프를 치며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잊혀 질만 하면 나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명박 서울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이 시장은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이 시장다운 발언이다. 또 몇 년간 이용료를 내지 않고 '황제 테니스'를 즐겨왔던 것도 최근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해찬과 이명박. 두 사람 모두 국왕만큼이나 많은 권력을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들은 이제 짜증낼 힘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랄 뿐이다.

■유철주(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새봄을 맞은 캠퍼스는 활기가 넘친다. 그러나 갈수록 신입회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대학 불교학생회의 현실은 올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불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선배들의 고민을 들어본다.

"신입회원 모집 너무 힘들어요"

신입생 홍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신입생들이 불교동아리에 대한 관심 정도가 생각보다 매우 낮다는 것과 홍보 포스터를 붙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포스터를 붙이면 그 다음날 바로 다른 동아리가 우리 포스터 위에 다시 붙이기 때문이다. 몇 번을 반복했지만 더 끈질긴 동아리들의 테러(?)에 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만의 포스터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 학교는 여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동아리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불교라는 이미지가 신세대 여대생들에게 고리타분하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학교에서 개최하는 '동아리 박람회' 때 신입생들과 함께 예쁜 단주를 만들면서 불교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할 생각이다.

권누리(동덕여대 불교학생회장)

예산 미비로 전략 못 펼쳐

요즘 대학생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 입학 후 동아리 활동이나 과 활동보다는 취업 준비로 더 바쁘게 보내고 있다. 공무원 준비나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한 활동 비중이 커지다 보니 자연히 동아리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특히 종교동아리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떨어진다.

동아리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 동아리 자체적인 행사 역시 축소 할 수밖에 없다. 또 동아리 유지비 등을 모금하기 위한 권선 등의 활동들이 위축되고 자체 예산이 모자라 운영이 매우 어렵다.

그러다보니 타 동아리에 비해 신입생들을 유치하는데 다변화된 전략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차를 한잔 마시면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돈이 들며, 동아리를 알리는 기념품과 포스터 제작도 운영비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신입생 환영행사 및 체육대회 등 자체행사를 위해서도 꽤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인데 비해 수입은 너무 미비해 한숨만 절로 나온다. 박경훈(대구대 불교학생회장)

적극적인 마음이 '희망'

요즘 나는 너무나 초라해서 사먹기에도 아까운 사탕이지만 이것을 신입생들에게 직접 다가가 주면서 "불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주세요"라며 목이 쉬어라 정문 앞에서 외치고 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해 매일 사탕 한 자루씩을 사고 있다. 이결과 지난해 초 회원 1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올해는 4일 동안 3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신입생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학생 선배들의 적극성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일단 기존 선배 회원들부터 스스로 열심히 해야만이 주변 연계 사찰에서의 지원을 기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나 혼자 시작한 유료 회원이 올해는 여러 법우들의 적극성에 힘입어 건양대 총장님과 관촉사 주지스님, 지도법사 성원 스님의 후원으로 이어졌다.

절대로 홍보 부스만을 만들어 놓고 "오세요~!"라고 해봤자 아무도 오지 않는다. 스스로 정진하지 않으면 나를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신입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자.

신동우 (건양대 불교학생회)

'현대' 만평 심 민 섭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 관련자료를 찾습니다.

법장큰스님께...
큰스님이 떠나신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큰스님의 인자한 미소가
그리워 집니다.

큰스님이 너무 그리워서 어제는 조계사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면 큰 스님의 흔적 한 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 ...
한참을 조계사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큰스님이 계시지 않는 조계사 마당이 왜 그리 넓게 느껴지던지 ...
휑한 바람만 맞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에 큰 스님에 대한 그리움만 한 켜 더 쌓였습니다....

인곡당 법장대종사 문집간행위원회에서는 스님의 1주기를 맞아 큰스님과 관계된 자료를 찾고있습니다. 간직하고 계신 법장스님 관련 자료수집에 수희 동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스님의 자료- 사진, 법문테잎, 동영상 자료등
2. 스님과의 사연 - 생전 스님과 인연에 관한 사연, 에피소드 등
3. 열반하신 스님께 전하고 싶은 편지글 등

보내주신 자료, 사연 등은 법장큰스님을 우리 모두가 기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불교사에 길이 남을 기록물이 되도록 문집간행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한 자료는 반드시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인곡당 법장대종사 문집간행위원회

자료보내실곳 : 서울 종로구 수송동58 두산위브파빌리온 1012호 (우110-858)
tel : (02)723-4336 e-mail : imlabor@hanmail.net

봉 고경사 자광 큰스님 행

경북종무원장 취임 및 회갑 법회

자광스님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원만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영주 청정도량 고경사 자광 큰스님의 대한불교본원종 경북종무원 취임과 회갑을 맞아 제방 대덕 큰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시고 조촐한 축하법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사 다망하시더라도 수희 동참하시어 많은 축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일 시 : 불기 2550년 4월 1일 토요일 (음, 3월 4일 사시)
◆장 소 : 경북 종무원 용암산 고경사 대웅전
◆문 의 : (사)대한불교본원종 경북종무원 고경사 054)638-8886~7

경북종무원 취임 및 회갑 법회 봉행위원회

총무 : 김감로수 / 노감로화 합장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17-506-5677 / 011-9566-2967